 농촌진흥청	보 도 자 료		작성과	축산환경과
	2018년 2월 28일(수)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		담당자	과장 곽정훈 농업연구사 우샘이
			연락처	063-238-7409
			제공일	2018. 2. 27.(총 2장)

환절기 반려견 건강주의보, 올바른 돌봄 요령 소개

- 산책하기 전 미세먼지 지수 확인 ... 실내 습도 조절 -

- 미세먼지와 건조한 날씨가 기승을 부리면서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견에게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다.
- 농촌진흥청(청장 라승용)은 환절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산책과 실내놀이 등 반려견 돌봄 요령을 소개했다.



<산책 나온 강아지들>

- 먼저 반려견과 산책하기 전, 미세먼지 지수를 확인해야 한다. 미세먼지로 대기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밖에 머무는 것보다 **20분 안팎의 짧은 산책**이 바람직하다.
- 또한, 계속 걸어 다니는 것보다는 **집과 가까운 장소에서 머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** 좋다. 산책 후에는 신선한 물을 충분히 준다.
- 나이 든 개(노령견)처럼 면역력이 약한 경우나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산책을 삼가야 한다.


산책 시간이 줄었다면 그 대신 다양한 실내 놀이를 제공한다.

- 반려견은 후각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. 시중에서 판매하는 후각 활동(노즈워크) 제품이나 이불, 양말 등으로 간식이나 장난감을 숨기는 놀이는 반려견의 집중도가 높은 활동이다.
- 물고 당기는 놀이(터그놀이)나 공놀이, 간식을 이용한 간단한 훈련은 반려견과 보호자가 교감을 나누게 하고 운동 효과뿐만 아니라 반려견의 행동풍부화¹⁾를 돕는다.



<담요 사이에서 간식을 찾아내는 실내 놀이>

- 외부 습도가 낮은 환절기에는 실내 또한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**실내 습도 조절에 각별히 신경**을 써야 한다.
- 실내가 지나치게 건조할 경우, 반려견의 피부 각질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**하루 한 번 이상 빗질**해주며 **피부 상태**를 확인한다.
- 가슴기로 실내 습도를 조절해 **코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살피고** 마시는 물의 양이 늘어나므로 **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**할 수 있는 급수기를 준비한다.
-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우샘이 농업연구사는 “환절기 반려견을 건강하게 돌보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영양 공급, 그리고 기후 특성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.”라고 전했다.



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우샘이 농업연구사(☎ 063-238-740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1) 동물에게 자연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자극을 줌으로써 자연에서 보이는 행동을 유도해 내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예방 및 감소시키는 것을 말함.